



박영환 소장에게 듣는
융합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방안

소통과 융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지난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지역본부가 융합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됐다. 융합기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고자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박영환 소장을 만나보았다.

Q. 경기지역본부가 융합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2007년 안산연구센터로 출발한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3월 생기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융합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됐습니다. 안산연구센터를 설립했을 당시, 안산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300명이 넘는 연구인력을 보유한 연구소이자 생기원 3대 중점 연구영역 중 하나인 융·복합생산기술 분야의 연구 거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그 어떤 연구원에서도 융합 분야에서 본부 이상의 조직을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그만큼 융합생산기술연구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생기원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국내 융·복합 기술 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최근 전 산업 분야에서 융·복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나라 전반에서 융·복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다 보니 새로운 산업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융·복합은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분야의 업종 및 기술을 결합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에 융·복합 기술 개발